

순수이성비판 노래

원형자

감각의 빛은 오성의 그곳에 갇히고
세계는 우리 안에 살포시 안긴다

현상을 드러내고 본질을 숨기고
공간은 밖이 아닌 우리에게 바친다

시간을 멈추고 경험은 실타래에 감기고
눈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

짜임의 소리, 어떤 자체도 인식 못하고
듣는다만다.로 위장을 씌운다

욕망의 이성을 한계에 다다르고
무지는 자유의 정점에 다다른다

가위를 들어 이성을 자르고
쓰레기통에 처박힌 진리를 본다

어찌할꼬! 어찌하랴!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하는가?

애라 머릿속 전투염을 꺼낸다
그 속에 진리, 점차 더워는 없었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순수 이성 비판<임마누엘 칸트>

작품 설명

인간 이성의 구조적 한계와 허무에서 다시 새로움을 창조하는 과정의 고뇌, 고민을 풀어냈다. 순수 이성의 비판을 읽으며 인간 내면의 사유와 혼란, 무지까지 그려내며 인간 중심주의적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이성의 자각을 내포했다.

우선 인간 인식은 현상이나 경험적으로 존재한다.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현상에 의존하며 때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외부 공간도 인간 내부에 투영된다. 시간은 경험이 인간 내면에 얹히고 현실에 의존한 시각은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안다'와 '듣다'는 허상일 수 있고 칸트가 주장하는 물자체 인식 불가능에 맞닿으며 그것이 가면(위장)일이라는 주장도 폈다.

칸트는 한계를 실천이성의 필요조건으로 인정했다. 이에 이성적 접근에 한계와 무지가 창조적 사고의 출발점으로 봤다. 기존 이성 철학을 비판(가위질)하고 진정한 이성을 찾고자 몸부림(쓰레기통)친다. 그러면서 실체적 질문으로 실천이성 접근을 시도했다. 인간의 이성(전두엽)에 가득 찬 욕망과 교만 등을 꺼내 본 뒤 다시 자기성찰을 준비한다.